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16장 온 세상아 주님을)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3,13-17)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3,13-17 주님 세례 축일 (1/12)

아~주 아~주 용한 점쟁이에게 천주교 신자가 점을 보러 가면 점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용한 점쟁이는 우리가 세례 때 성령으로 받은 인호가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것을 알아보고 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나누어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잡신이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원죄도, 본죄도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로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세례 자체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똑같은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하느님계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신년이라고 운세 찾지 마시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 분만을 믿으며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수원교구 1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새 성전 이전으로 분주했던 2013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2014년을 맞이하여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건강한 성가정과 번창하는 소공동체를 이루길 기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사무엘기 상권 16-20장**

◈ **성서문제**

1. ‘이사이’는 어디 사람입니까? (16:1)

2. 하느님은 사람의 어디를 보십니까? (16:7)

   1) 외모
   2) 재산
   3) 큰 키
   4) 마음

3.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시오. (17:37)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 주신 (　　)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 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사울은 (　　)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면 가거라. (　　)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4.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사람을 고르시오. (19:1, 11)
   1) 요나탄
   2) 골리앗
   3) 미칼
   4) 엘리압
   5) 아비나답
   6) 삼마

5. 다윗은 바위 옆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누구에게 몇 번 절 하였습니까? (20:40-42)
   누구에게 :
   몇 번 :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누구나 감정은 가지고 있되, 그 감정을 조절하고 초월할 수 있는 자가 곧 자신을 이기는 자인 것이다. 우리가 참 인격자라면 무분별한 감정보다는 이성에 따를 것이요, 참 신앙인이라면 거기서 더 나아가 신앙을 따를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자랄 것이다. 사울은 질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미 받은 은총마저 상실해 버리고 자기와 자기 주변의 모든 이를 파멸로 이끌었다. 사울에게는 자신의 영광과 지위의 보존만이 문제였을 뿐 하느님의 뜻도 백성의 안위도 이미 그의 안중에는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질투가 아니라 타인과 전체를 생각하는 너그러운 사랑이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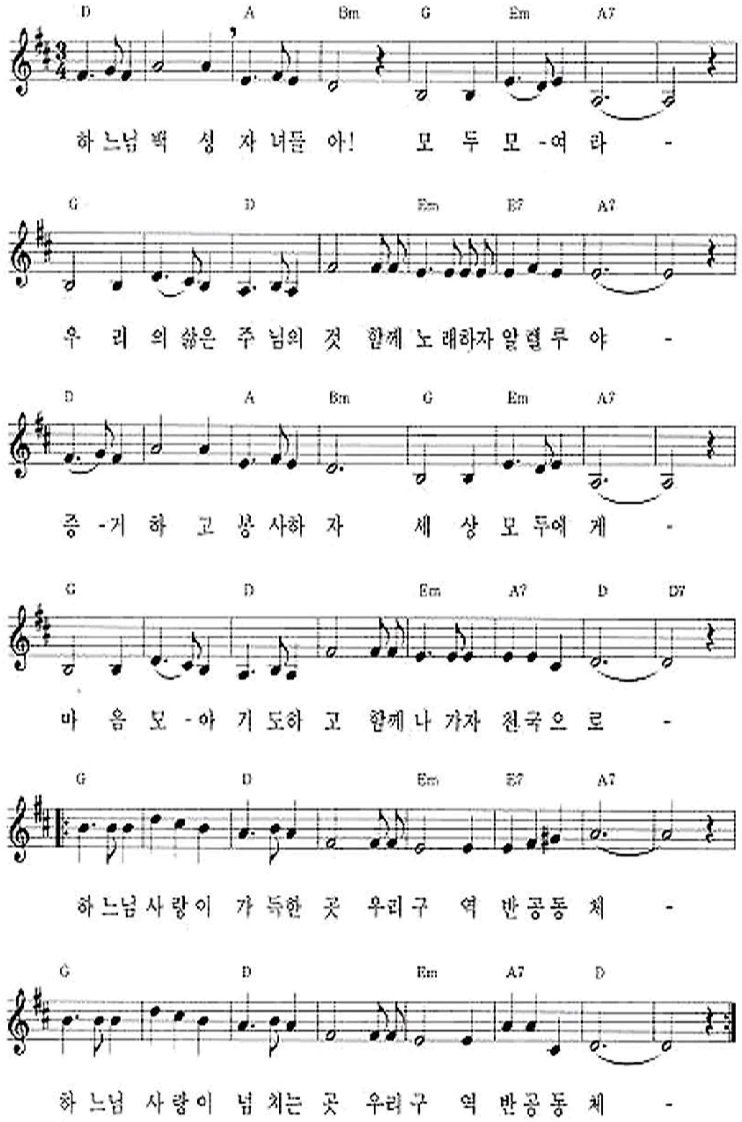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